



☞ 보도일시: 2019. 11. 5.(화) 조간,
<인터넷 2019. 11. 4.(월) 12:00 이후>
☞ 총 4쪽(붙임자료 1쪽 포함)

❖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산업안전부
부장 김인성 ☎ 052-703-0611
차장 박성남 ☎ 052-703-061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kosha.or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안전보건공단,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

특히,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낼 것

-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박두용)은 지난 7월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「사고사망 감소 100일(7.16~10.31) 긴급대책」을 추진하였다.

<업종별 산재사고사망자 통계('19년 상반기 기준)> (단위 : 명, %)

구분	'18.6	'19.6	증감(명)	증감률(%)
계	503	465	△38	△7.6
건설업(%)	235	229	△6	△2.6
제조업(%)	117	108	△9	△7.7
서비스업 등 기타업종(%)	151	128	△23	△15.2

- 이에 따라, 건설현장 추락, 제조업 끼임 등에 중점을 두고 패트룰 수시 점검* 등 산재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.

- (점검 대상) 일선기관별로 관할지역의 사고사망자 분포·발생추이·계절적 요소 등을 고려하되, 중·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선정
- (점검방식) ▲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(차량 27대, 181개 점검반)을 구성, ▲보호구 미착용 등 미비사항은 즉시시정, 시간 소요사항은 계도기간 내 개선 요구, ▲1차 현장점검 → (2차 현장점검) → 불량사업장 노동부 감독

- 특히, 공단은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·소규모 현장에 대해 패트룰 점검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였다.

- 패트룰 점검-감독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공단 일선기관이 세부 사항을 협의*한 후 진행하였으며,

* 점검 방식·점검 후 감독 대상·감독 요청 횟수, 요청 내용·시정지시 사항 등

-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되, 이에 불응하거나 계도기간 내 미개선 사업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에서 감독을 실시토록 하여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였다.
- 이에 따라, 그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, 작업자 의식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*.

* 예) 패트롤 점검 시행 초기 공단의 즉시시정 불응, 사업장 비협조가 상당하였으나, 점차 협조분위기로 변하고 즉시시정 요구에도 응함

□ 10.10. 기준 전국의 25,818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21,350개소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.

- 아울러,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하여 383개소 감독을 실시*하였으며, 점검-감독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.

* 감독결과: 112개소 사법처리, 17개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

<현장점검 결과 행정조치 사례>

- (작업중지) '19.7월 광주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설현장
 - ↳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위험요인 방치
 - (조치내용) 작업중지(9일)와 안전대책 마련
- (과태료 부과) '19.10월 인천 소재 단독주택 신축 건설현장
 - ↳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, 동근톱기계에 방호장치 미설치 등
 - (조치내용) 과태료 240만원 부과

□ 아울러,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(유해위험방지계획서* 대상) 중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였다.

* 산안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 확인 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

- '공사종류 - 시공 순위 -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발생 여부 - 공정률' 등을 분석하여 점검 대상 사업장 순위(1,500여개소)를 선정하였으며,
- 현장 확인 점검 후,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불량 사업장은 노동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.

□ 한편, 제조업에 대해서도 산재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.

- 제조업의 사고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·보수·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·감독*을 추진하였으며,
- 최근 수주량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*하고 있다.

* (소규모 수리조선소) 패트롤 점검 - 감독 연계 강화, 사업장·선주 교육 등
(완성배 제작·블록업체 등) 원-하청 수준평가, 노동부 기획 감독 등

□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“긴급대책 추진에 따라,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”며,

- “공단은 현장에서 최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되, 불량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”이라고 강조했다.
- 이어, “앞으로 공단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
박성남 차장(☎ 052-703-07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